『전국범죄피해조사(KCVS)』 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범죄피해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 여부와 피해양상 및 범죄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범죄피해율을 파악하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전국규모의 범죄피해조사를 약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2009년 표본규모 확대 및 조사표 항목 수정 등 조사방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년 기준 범죄피해조사'(2009, 1차), '2010년 기준 범죄피해조사'(2011, 2차),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2013, 3차),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2015, 4차)가 시행되었다.
- 2011년에 수행한 제2차 피해조사는 범죄피해 선별질문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관련 문항을 수정하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과 표본규모 확대, 회상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사 시기 조기화 등의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 2013년에 실시한 제3차 피해조사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꾀하고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조사명칭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2차 조사에 이어 범죄피해선별문항 체계 수정 및 보완, 사기피해 관련 질문 개선 등의 조사표 수정 작업을 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표 해당 지문의 용어와 문장의 흐름을 순화하였고 조사 가이드라인 및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판별조건식을 변경하였다.
- 2015년에 실시한 제4차 피해조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기준 시점(2015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모집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집 방법

- 조사구 추출 방법: 층화확률비례추출법(16개시도 및 동/읍면을 고려한 25개 층)
- 가구 추출 방법: 조사구 내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

▢ 총 조사표본수

- 총 성공 가구 수 : 6,960가구
- 총 성공 개인 수 : 14,976명

■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방법

▢ 자료수집 방법: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법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 기간

- 조사원 교육: 2015. 5. 27. ~ 6. 10. (2주간)
- 조사 기간: 2015. 5. 29. ~ 7. 17. (7주간)

  ※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Mers) 감염 우려로 조사기간 장기화

▢ 조사대상 시점 및 조사기준 시점

- 조사대상 시점: 201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 조사기준 시점: 2015년 5월 29일

■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내용

▢ 주요 내용

- 범죄피해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범죄 피해율과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및 범죄피해발생 변화 양상 분석
- 범죄피해유형별 발생 실태 및 피해결과와 연도 간 비교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 및 만족도와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분석 및 연도 간 비교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추세 분석 :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 기초조사표 조사항목

- 동네와 이웃 환경 : 환경적 요인과 범죄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으로, 동네 주위환경(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동네 사람들(이웃 관계, 범죄 관련 활동 참여), 동네 경찰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범죄에 대한 증감 예상 : 우리나라와 동네의 범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함.
- 범죄피해 두려움 : 체감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일반적 두려움, 대상별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 일상생활의 행동과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거주 안정성 : 현 동네 거주기간, 5년 이내 이사횟수, 거주지 영업활동 여부, 주택점유형태 등을 통해 거주의 안정성을 조사함.
- 범죄피해경험: 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경험(속임, 물건, 주거침입, 손상, 장소, 방법, 지인, 성범죄 관련)을 묻는 질문으로, 피해경험 수와 상습피해 여부, 사건조사표 수를 결정하는 근거자료가 됨.

▢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 기초조사표 점검항목: 기초조사표의 점검항목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며 기입하는 내용으로, 기초조사표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관련 문항 번호와 해당 범죄피해의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에서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함. 상습피해의 경우에는 피해횟수도 기입함.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지역, 장소에 대한 질문 문항임.
- 범행수법: 주거침입 여부, 침입방법,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 신체공격 여부, 위협 내용 등에 대한 질문임.
- 신체피해: 신체피해 내용, 검사(치료) 장소, 병원 치료 및 입원 여부, 의료비 지출액, 시간손실 여부 및 일수,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에 대한 질문 문항임.
-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음주상태, 방어행동, 선제 공격, 신체피해 여부, 대응행동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재산피해: 속임피해 내용, 사기 수법, 재산피해 여부, 피해물품, 손상 물품, 수리비, 피해배상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정신적 피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내용, 상담 및 진료 경험 여부, 진료기간 및 진료비용,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에 대한 인지정도, 가해자의 유형 및 인원, 성별, 연령대, 음주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 문항임.
- 경찰 신고와 처리현황: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 신고 이유, 경찰의 조치 여부 및 내용,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가해자 검거 여부, 시간손실 여부 및 일수, 미신고 이유 등에 대한 질문임.

■ 데이터 공개

- 최종 데이터는 메뉴얼 등과 함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www.crimestats.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형사정책 관련 연구자, 대학원생 등 일반 이용자들은 연구논문, 학위눈문 집필 등 학술적 용도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제4차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의 경우 아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홈페이지(http://www.crimestats.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없다. 이번 학술대회와 논문경진대회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데이터 활용사업

-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 증진을 위하여 2010년, 2012년, 2015년에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12월 9일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올해에는 학술대회의 부속행사로서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시상과 더불어 학술대회의 한 분과로 편성하여 발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